

배포

2026. 06. 11.(목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고양일산 통합재건축 흰돌마을3,5단지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 체결

- 고양일산 흰돌마을3,5단지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위해 협약 체결
- 연내 사전자문 신청 위한 특별정비계획수립, 인허가, 초기사업비 등 적극 지원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10일 고양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2구역인 흰돌마을3,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’은 일산신도시와 같이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(100만㎡ 이상) 등을 대상으로, 단일 단지별 정비가 아닌 인접 단지, 기반시설을 포함한 ‘통합정비’를 시행함으로써 도시기능 및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이다.
- 일산신도시에는 현재 총 48개 특별정비예정구역(약 481.8만㎡)이 지정돼 있으며, LH는 그중 아파트22구역(흰돌마을3,5단지)의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(‘26. 6. 8)됐다.
- 이번 협약은 아파트22구역(흰돌마을3,5단지) 통합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주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.
-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과 입안 제안 동의서 확보 등을 담당하며,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함과 동시에 초기사업비를 투입해 정비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.

-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연내 아파트22구역(흰돌마을3,5단지)의 특별정비 계획 사전자문 신청을 추진하고, 2027년 상반기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.
 - 현재 사업계획(안)에 따르면, 아파트22구역(흰돌마을3,5단지)은 기존 1,444호에서 약 2,300호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며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“일산 아파트22구역은 일산 초입에 자리한 관문 역할의 입지로 평가되는 곳”이라며, “LH의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,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	신도시정비처	책임자	팀 장	박수익	(055-922-4502)
		담당자	차 장	최향주	(055-922-4515)
			과 장	강대하	(055-922-4516)